LG파워, 품질·환경·안전 통합인증

통합 경영시스템 통해 국제적합 발전소 운영 … 고객중심 경영 박차

전력 및 지역난방 공급회사인 LG파워(대표 정천수)는 발전설비와 지역난방 공급설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품질·환경·안전 및 보건분야 통합인증을 획득했다.

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(KOSHA) 및 영국표준협회(BSI) 관계자들이 12월 22일 LG파워 안양발전소에서 LG파워 대표인 정천수 사장에게 통합인증서를 수여했다.

LG파워는 품질경영체제 ISO9001, 환경경영체제 ISO14001, 안전보건경영체제 OHSAS18001과 KOSHA18001 등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범위는 발전, 전기 및 지역난방 사업분야이다.

통합인증을 획득한 LG파워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국제규격에 걸맞는 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.

LG칼텍스정유의 자회사 중 하나인 LG파워는 안양과 부천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무사고 1500일을 달성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품질·환경·안전 및 보건분야에서 선진화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.

<화학저널 2004/12/23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